

한일관계의 현실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및 독도종합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현재 한일관계는 역사인식문제와 영토문제로 매우 악화되어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특히 우파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한국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필자는 그런 행태가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울 지경까지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완고한 태도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대다수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민당과 일본의 보수를 대표하는 산케이신문의 헌법개정안을 보면 제20조 ‘신교의 자유’를 수정해 ‘관습적인 종교행사’이면 정부각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은 일본총리나 내각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도 위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수정이다.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는 1860년대에 에도막부를 타도한 초슈번(현, 야마구치현)이 초슈번 내 16군데에 작은 야스쿠니신사, 즉 초혼장(招魂場)을 만든 것이 그 기원이다.

그들이 에도막부를 타도하여 메이지(明治) 신정부를 만든 후에 도쿄초혼사(東京招魂社)라는 이름으로 도쿄에 그들의 초혼장을 건립해 10년후 야스쿠니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전사자를 위령, 현창(顯彰)하여 신으로 승격시키는 야스쿠니신사의 기원은 초슈번에 있고 초슈번의 후예인 아베신조는 그런 야스쿠니의 정신을 계승하여 1945년 이전과 같이 야스쿠니신사의 기능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일본이 정식군대를 갖게 되면 전사자들이 반드시 발생하므로 아베신조는 전사자들을 전전과 같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할 생각임이 예측된다.

초슈번은 메이지정부의 중심부를 장악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근대 일본을 창설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아베신조의 고향이 야마구치현(山口県) 즉 옛 초슈번이므로 그는 고향의 영광을 계승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의 외조부는 초슈번 출신의 정치가이자 A급전범이었던 키시 노부스케(岸信介)다. 그러니 아베신조는 외조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A급전범을 부정하고 전범을 만든 도쿄재판, 즉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베신조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백인지배 하에서 고통 받은 아시

아인민들을 해방시켜준 해방전쟁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런 그의 그릇된 신념이 ‘침략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해 진 바가 없다’는 망언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를 보면 일본이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제 판결을 모두 수용하므로 인해서 다시 독립할 수 있다. 즉 일본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하면서 A급전범을 인정했고 일본이 다시 독립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신조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나 유엔 하의 세계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서슴지 않다.

현재 아베내각은 전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유엔체제를 은밀히 모두 뒤집으려고 작정했다고 본다. 위안부 동원에는 강제성이 없었다, 난징대학살은 날조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등의 그들의 주장은 오로지 일본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부정하고 일본국민들에게 일본은 올바른 전쟁을 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놓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 목표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정하는데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국민투표로 50% 이상의 일본국민이 헌법 개정 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우경화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아베정권은 소위 망언을 입버릇처럼 함으로 인해 일본국민들의 마음속까지 그들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구 일본군은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일본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실은 현지의 일본 군인들이 알아서 작전을 감행한 후 중앙정부가 추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폭주를 거듭했던 것이다. 그러니 괴뢰 만주국 건설에 대해 비판한 당시의 이누카이(犬養) 일본 총리를 육군장교들이 암살해 버렸다. 2.26사건 때는 그들이 오카다(岡田) 일본총리를 암살 미수했다.

그런 구 일본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폭주와 폭행에 대해 일본이 철저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일본군대가 부활되는 것을 한국이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과 달리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할지라도 일본이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정식군대가 부활되면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지 모르겠는데 한국 측 국민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양선진국들이 한국국민의 불안감을 이해해 주고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제동을 걸어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평화는 현재 미국 등 서양선진국에 달려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 미국이나 서양선진국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태평양지

역의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미국과 서양선진국들은 한일, 그리고 중국이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줘야 할 것이다.